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대행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대신인쇄  
070-7779-3019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5년 7월 30일 제114호

## 청송심씨대종회 · 주요기구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고문단      |  |  |  |  |  |  |  |  |   |                      |  |  |  |  | 顧問 宜斗 顧問 魚澤 顧問 相泳 顧問 相殷 顧問 相郁 顧問 晶求 顧問 榮燮 顧問 載榮 顧問 載鴻 顧問 龍俊 顧問 勳鍾 顧問 大平 顧問 漢竣 顧問 宇永 |  |   |
| 회장단      |  |  |  |  |  |  |  |  |   |                      |  |  |  |  |   | 名譽會長 宜洛 會長 甲輔 常任 副會長 相和 副會長 宜七 副會長 相錄 副會長 相植 副會長 相國 副會長 相均 副會長 贊求 副會長 一用 副會長 敏燮 副會長 載冕 監事 相烈 監事 周燮 監事 賢輔 |   |
| 재건립추진위원회 |  |  |  |  |  |  |  |  |   |                      |  |  |  |  | 顧問 宇永 委員長 甲輔 副委員長 相和 委員 相錄 委員 相植 委員 茂燮 委員 敏燮 委員 雄燮 委員 載冕 委員 載緒 監事 相烈 韓燮 韓燮 韓燮       |  |   |
| 장학회      |  |  |  |  |  |  |  |  |   |                      |  |  |  |  |   | 會長 甲輔 副會長 相和 幹事 甲澤 委員 相泳 委員 相錄 委員 相均 委員 彥泰 委員 載求 委員 榮燮 委員 載龍 委員 載緒 委員 正輔 大邱宗會長 宇永 委員 賢輔 委員 揆善            |   |
| 종보편집위원회  |  |  |  |  |  |  |  |  | 顧問 相殷 委員長 甲輔 委員 成澤 委員 相烈 委員 東燮 委員 敏燮 書伯 委員 光燮 委員 日燮 | 5 처 · 단 소<br>유사 · 관장 |  |  |  |  |   |  | 청송유사 相哲 청송유사 遠燮 덕천유사 弘燮 힘열유사 正秀 철원유사 相國 안성유사 贊燮     |
|          |  |  |  |  |  |  |  |  | 委員 伯綱 委員 載赫 委員 錫文 委員 載錫 委員 揆善 委員 秀永 委員 成起 韓燮 韓燮 韓燮  |                      |  |  |  |  |   | 연천유사 洪燮 청주유사 載龍 청송관장 載洪 안성관장 興周 청주관장 載赫  |   |
| 재산관리위원회  |  |  |  |  |  |  |  |  | 委員長 載冕 副委員長 相和 委員 相國 委員 相烈 委員 光燮 委員 周燮 委員 賢輔 幹事 彥泰  | 대종회 집행부              |  |  |  |  |   |  | 會長 甲輔 常任 副會長 相和 總務理事 彥泰 財務理事 載緒 文化理事 大령 甲澤 管理部長 孫仁淑 |

※ 行列順

### 青松沈氏 安孝公派宗會 정기총회 개최 공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년도 安孝公(諱 溫)宗會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5년 8월 13일(목) 11시

나. 장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번지(安孝公 齋室)

다. 주요내용(부의안건)

- |                           |                 |
|---------------------------|-----------------|
| 1. 2014년도 결산(안)承認의 件      | 5. 의결권 委任 承認의 件 |
| 2. 2014년도 이익잉여금처분(안)承認의 件 | 6. 감사선임 承認의 件   |
| 3. 2015년도 사업계획(안)承認의 件    | 7. 회장 追認의 件     |
| 4. 2015년도 수지예산(안)承認의 件    |                 |

라. 기 타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종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31-253-8060, 253-8040, 팩스 031-254-8066)

2015년 7월 30일

青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明玉



기고문

4세조 靑城伯·定安公

沈德符(1328~1401) 선조님 소개



심재석

- 문학박사  
- 대중회 이사  
- 종보 편집위원

I. 심덕부 - 齋閣 건립에 즈음하여

청송 심씨는 시조 심흥부 이래 조선 시대 역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명문가이다. 그 뿌리는 조선 개국 공신이자 정치가인 심덕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성백 심덕부(이하 '공'으로 약칭)의 위상은 지대한 것이다.

공의 7남 중에서 세종대왕의 장인인 안효공 온, 온의 아들 공숙공 회가 영의정을 지냈으니 이른바 '3대 정승'을 배출한 명문 거족의 반열에 올랐다. 나아가 왕실의 외척 가문으로서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근자 우리 청송심씨대중회에서 연천에 있는 공의 묘소에 齋閣을 건립하면서 현조 송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공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전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공의 저술이나 문집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단편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공의 업적을 구성했다.

II. 경상도 지역의 세력가 청송 심씨

- 청송 심씨는 신라 말 이래 경상도의 대 세력가였다.

청송 심씨는 고려 말 심흥부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 윗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심 씨는 원래 신라시대의 큰 세력가인 호족이었다고 믿는다.

신라 장군 沈那가 있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인물은 신라 하대의 문경 지방의 대세력가인 沈忠(?!?)이라는 호족이다. 호족은 역사적으로 신라 말 고려 초의 반독립적인 지방의 지배자로, 스스로 장군이나 성주를 자칭하기도 하였다.

신라 말기에 새로운 불교의 종파인 선종이 중국에서 전래되면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고승들이 전국의 각처에 9개의 거대한 禪門을 개창하였다. 이때 道憲이라는 고승이 회양산에 봉암사를 개창 할 때, 沈忠은 회양산 중턱의 땅을 희사하여 회양산과의 경제적 후원자(단월)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심 씨는 이 무렵 경상도 지역의 큰 세력가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로 오면서 심 씨의 활동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에 이르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III. 관직 생활의 시작

1. 학문 수학과 관직 생활의 시작

공은 고려 충숙왕 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고려가 몽고의 간섭을 받던 '원 간섭기'에 출생한 것이다. 공은 고려 말의 대 유학자인 이색과 동갑내기 동문수학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송 심씨는 고려 말의 신흥사대부 집안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흥부-연-용으로 이어지는 관료 집안에서 성장한 공이, 음서로 관직에 나간 이래 왜구를 물리치고 위화도 회군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심씨 가문이 부각된 것이다. 공이 처음 관직에 나간 것은 17세 때였다. 음서(蔭叙=門蔭)로 좌우위녹사참군(정8품)이 되었다(〈특진보국송록대부청성백심공행장〉「동문선」권 117). 그러나 「고려사」 심덕부 열전에는 처음 받은 관직이 司 隸長同正(정7품)으로 나온다(「고려사」 권 116, 심덕부 열전).

공이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면, 부친인 龍이나 조부인 湑의 관직이 5품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음서는 5품 이상의 고관 자제들에게 허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심 문의 시조이자 공의 증조부인 흥부

는 위위시승(종6품), 조부연은 함문지후(정7품), 부친용은 이조 정랑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부친용의 관직이 이조 정랑이라는 「동문선」의 〈행장〉과 「고려사」 열전의 기사는 오류로 보인다.

원 간섭기에 이조는 典理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전리사에는 판서-총랑-정랑-좌랑의 순으로 직급이 편제되었다. 따라서 공이 음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부친의 관직은 5품 이상 관리여야 하므로, 차관급인 典理 掾이 옳을 것이다.

2. 음서란 무엇인가?

고려 성종 연간(982~997)에 성립된 음서 제도는, 5품 이상의 관리가 된 사람의 자식, 손자 등에게 관직을 주는 제도였다. 고려에서 관리가 되는 길은 음서와 더불어 과거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음서 출신이라 해도 진급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시대에 음서제도는 일반적이고도 뚜렷한 관직 진출의 통로였던 것이다.

음서로 관직에 나간 관리의 대부분은 5품 이상 직에 오르고, 다시 그 절반 이상이 재상에 오르고 있다. 과거로 관직에 나간 사람과 음서로 관직에 나간 사람의 비율은 비등한 것이 고려의 실정이었다. 공은 음서로 관직에 나가 재상에 오른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도 연구」 일지사, 1~88쪽).

3. 교육가 심덕부 - 江華府尹으로 鄕校를 일으켜 세우다

공께서 강화부윤에 취임한 것은 공민왕 15년인 1366년으로, 나이 39세 때였다. 공의 행장에 의하면, "이郡은 궁벽한 고을로 일찍이 講學한 일이 없었는데, 공이 부임한 뒤 크게 學舍를 건축하고 師儒를 맞이해 고을 자제들을 모아 詩書와 禮義를 가르치니 응성함이 文翁이 蜀지방을 教化한 기풍과 같았다"고 한다(〈특진보국송록대부청성백심덕부행장〉(동문선)권 117). 이처럼 공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궁벽한 시골 마을의 교육 진흥을 위해 보기 드물게 힘썼던 것이다.

IV. 왜구 침입과 심덕부의 이름을 날린 '진포대첩' (1380년)

고려 우왕 6년(1380년) 8월에 왜구들이 500여 척의 대 선단을 이끌고 곡식을 노략질하기 위해 지금의 군산 지역인 진포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배를 서로 붙들어 매고 대규모 인원이 상륙하여 약탈과 살육을 일삼자 海道元帥 羅世와 沈德符·崔茂宣 등이 직접 만든 火砲를 사용해 왜구를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전투가 진포대첩이다.

이때 퇴로를 잃은 왜구들이 남원 근처 운봉의 인월역에 모여 있자, 이성계의 지휘 하에 적을 섬멸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황산대첩인 바, 이성계는 이후 고려의 스타로 부상하게 되었다.

V.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의 초석을 놓다

1.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앞장서 '회군 1등공신'이 되다  
고려 말 요동정벌 시 공은 좌군도통사 조민수 휘하에 있었으나, 우군도통사 이성계 주도의 회군에 적극 동조하여 조선이 개국한 뒤 '회군 1등공신'이 되었다. 조선의 개국에 1등 공훈을 세운 것이다. 이것이 청송 심문의 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2. 이성계와 함께 昌王을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恭讓王을 옹립하다.

위화도 회군 이후 조민수와 이성계가 조정을 주도하였으나, 私田개혁 문제를 두고 이성계 일파가 독점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민수에 의해 옹립된 창왕 원년(1389)에 김저(金佇)사건을 빌미로 '우창

비양설'을 바탕으로 공양왕이 옹립되었다. 이 공양왕 옹립에 공의 힘이 컸다. 이성계의 주도하에 興國寺에 모여 공양왕을 옹립기로 한 것인데, 이때 모인 사람은 관삼사사인 공을 비롯해 정몽주, 성석린, 조준, 박위, 정도전 등이었다.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廢假立眞論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공로로 이른바 '9공신'의 반열에 끼게 되었다.

3. 인생의 고비 - 황해도 토산(兎山)에 잠시유배되다

공양왕 2년인 1390년 5월에 '윤이·이초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 사람이 명나라에 가서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작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실이 명나라에서 고려에 알려졌다. 명에서 보낸 그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던 金宗衍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 도망한 일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공을 비롯한 지용기, 박위 등이 연루되어 제거된 것이다. 공은 이 사건으로 이성계 등 9공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잠시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를 갔으나, 곧바로 혐의가 풀려 귀경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 세력 내부의 무장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김종연 사건이다. 공에 의해 옹립된 공양왕은, 공과 이성계를 대립시킴으로써 이성계의 군사력을 제어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공을 무던히 신임하고 있었다. 공의 열전에 "저(이성계)와 심덕부는 한 마음으로 나라를 받들고, 본래부터 서로 시기하는 생각이 없었기에 趙裕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를 취조하지 말으시어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끝까지 보전하게 해주십시오"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4. 두 형제의 갈림길 - 형님은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아우님은 고려의 '충신'으로 갈라지다

공과 아우이신 심원부 공과의 관계는 알 길이 없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는 모친상을 당했을 때 두 분이 성리학자로서 정성을 다하여 치상하였다. 이어서 두 분 형제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경남 산청에서 전북 익산의 명당으로 이장하는 데 일심으로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개국과 더불어 형제 분은 정치적 이정표를 달리 하면서 상호 왕래가 소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공은 아우의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침묵'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의 아우님이신 원부 공이 고려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두문동에 들어가면서 지은 〈入杜門洞〉은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한다. "여러 대에 걸쳐 조정으로부터 남다른 은전을 입어왔는데 / 이제는 군주마저 잃었도다 / 菴山은 옛 모습 그대로가 완연한데 / 漢江水는 어이하여 가없이 흘러만 가는가 / 해는 저물었으나 해바라기는 기울어진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 사람들은 공굴 빈터에 가장 심기에 바쁘구나 / 허리에 지난날의 조정 冠帶를 둘러 매고 / 슬피 탄식하며 杜門洞에 들어가노라"(심원부, 〈入杜門洞〉, 청송심씨대중회 간행, 2006 「靑松沈氏世稿選」 417쪽).

형님은 새로운 왕조의 대들보로서 활동하고, 아우님은 고려의 '충신'으로서 신흥사대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당시는 명운이 다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형님인 공은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해 청송 심씨의 중흥조가 되었다. 그리고 아우님은 고려 말에 도입된 성리학의 신봉자로서 不事二君의 절개를 높이 선양한 '고려의 충신'이었다. 한 가지에 나고서도 이렇듯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천양지차의 인생 역정을 보인 것이다. 후손된 우리는 두 분 모두를 존중하고 경모할 뿐이다. - 다음호에 계속 -





#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恨)이다' (有我無蛙 人生之恨)

고려 말, 대학자인 이규보가 과거에 몇 번을 낙방한 뒤 초야에 묻혀 살면서 집 대문에 써놓은 글이다. 한자어로 쓰면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 이라고 하는데, 와(蛙)는 개구리 와 字다.

어느 날 임금이 단독으로 야행(夜行)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다.

요행히 민가를 하나 발견하고 하루를 묵고자 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임금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임금이 발길을 돌리는데 대문에 붙어있는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 이란 글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다?' 여기서 개구리가 뭘까...?

많은 덕목과 지식을 갖춘 임금이지만 개구리가 뜻하는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다.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임금이 주모에게 외딴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니 "과거에 낙방하고 집안에서 책만 읽으며 살고 있는 이규보라는 선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궁금증이 유발한 임금은 다시 그 집으로 내려가 통사정으로 하룻밤을 묵어가며 대문에 붙어있는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의 글 뜻을 들을 수가 있었다.

집주인 이규보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아주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피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까마귀가 피꼬리한테 두루미를 심판으로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이 숲속의 주인으로 결정하지는 것이었다.

노래는 커녕 목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자신에게 노래 시합을 제의하니... 피꼬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지만 월등한 실력을 자신했기에 뒷말 없이 제안에 응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노래시합을 제의한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논두렁에 있는 개구리를 자루 한가득 잡아다가 두루미한테 갖다주면서 귀엣말로 뭇가를 속삭이는 것이었다.

약속한 3일이 지나 피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국씩 부르자 심판인 두루미의 판정만이 남게 되었다.

피꼬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고운 목소리로 불렀기에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심판인 두루미가 까마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얘기는 이규보 자신이 실력이나 학문의 깊이가 월등한 데도, 과거만 보면 꼭 떨어지는 것이, 돈 없고, 정승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불의와 불법으로 얼룩진 과거시험이 피꼬리와 까마귀 얘기와 같이 글귀를 만들어 붙여 놓았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은 임금은 이규보의 품격이나 지식이 고매하다고 판단되어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인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있다고 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궁궐로 돌아와 임시 과거를 열 것을 명하였다.

과거를 보는 날, 이규보도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관이 내 걸은 시제가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이 아닌가?

깜짝 놀란 이규보가 그제서야 며칠전 자기집에서 하루를 유숙한 사람이 임금님임을 알아보고,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린 다음 답을 일사천리로 적어냈다.

말할 것도 없이 장원급제를 한 이규보는 임금이 초야에 묻힌 자기를 알아보고 등용한 것에 감응하여 조정과 백성들 위해 큰 업적을 남겼다.

이규보는 평생 동안 8,000여 편의 시를 지었으며, 이 중 구려 동명왕에 대해 쓴 <동명왕편>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글을 잘 쓰기로 이름나 외교문서를 쓰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몽고 침입 시 몽고 황제에게 <친정>이라는 글을 써 보내 몽고황제를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리 민족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재물을 모으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높은 벼슬을 하면서도 가난하게 살다가 70세에 벼슬을 하직하고, 74세에 세상을 떠났다.

<동국이상국집>에는 이규보가 쓴 시와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국산생전>과 <청강사자현부전>은 가전체 문학의 대표작품으로 꼽힌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반칙을 일삼는 사람이 오히려 득을 보는 사례를 생각하면서 이규보의 과거등용에 대한 고사(故事)를 찾아 적어보았습니다.

- 갑택 문화이사 대행 -



시조모소입구 웅장한 소나무

## 살의유머

### 세금 천국

- 태어나니 ..... 주민세
- 살았을 때 쫓더니 ..... 증여세
- 죽었더니 ..... 상속세
-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 갑근세
- 힘들어서 한대 물었더니 ..... 담배세
-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 주류세
- 아껴 쓰고 저축하니 ..... 재산세
-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 ..... 방위세
- 황당하게 술에 왜 불니 ..... 교육세
- 화장품에 튼금없이 왜 불니 ..... 농어촌특별세
- 월급 받고 살아보려니 ..... 소득세
- 장사하려 차 샀더니 ..... 취득세
- 차 넘버 다니 ..... 등록세
- 월급쟁이 못해서 회사 차렸더니 ..... 법인세
- 껌 하나 샀더니 ..... 소비세
- 집에서 가만히 쉬었더니 ..... 전기세, 수도세
- 전기만 썼더니 ..... 누진세
- 배 아파서 똥춤 누면 ..... 환경세
- 좀 있는 양반들은 ..... 탈세

-대중회 관리부장-



## 노자(老子)의 인간관계 5계명(五誠命)

노자(老子)는 주나라 궁정도서관의 기록계장(도서관리인)이었다가 후에 궁중생활이 싫어 유랑의 길을 떠났다. 노자의 행적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노자의 '도덕경'에 나타난 사상에서 인간관계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 놓지 말라**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추켜 세우거나 머지 않아 밝혀질 사실을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회유하면서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뢰받지 못하여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된다.

**둘째, 말 많음을 삼가라!**  
말이 없는 편이 좋다. 말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한다. 말보다 태도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셋째, 아는 체하지 말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아는 체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지혜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이다.

**넷째,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돈은 인생의 유희유로서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돈에 집착한 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다섯째, 다투지 말라!**  
남과 다투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본다. 다투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 좋은 글 제공 : 상은 홍보편집위원회 고문 -



### 종인 소개

menu01 menu02



**심동섭 (沈東燮)**

- 大宗會 理事
- 宗報 編輯委員
- 判事公派 丹城默谷宗會 會長
- 成均館 典儀
- 晉州鄉校 典校

옛 노랫말에 '진주라 천리 길'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에서 천리거리에 있는 경남 서남부의 중심도시 진주에 사는 동섭 전교를 만나러 아침 7시 남부터미널에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과나리봇짐을 진 시골 선비가 서울의 과거 시험 길에 오르면 몇 개월 걸린다는 천리 길 진주가 잠시 눈을 붙였는가 싶었는데, 3시간이 조금 지나니 벌써 도착하였다.

진주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니 기본요금 거리의 육봉에 진주향교가 산허리에 걸려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향교를 출입하는 우리 일가 분들과 선비 10여명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양반가문에서 오셨으니 문묘에 분향을 하셔야지요." 해서 그렇잖아도 그러기로 마음 먹고 왔기에 도포에 갓을 쓴 선비 10여명과 함께 창홀에 따라 대성전을 봉심하였다. 지방에 취재를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향교 대성전에 봉심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봉심을 마치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동섭 전교님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 먼저 진주향교 전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주향교는 어떤 곳입니까?**

진주향교는 서기 987년 공립 중등교육기관인 향학당으로 출발하여 조선 건국 후 1398년 문묘를 창건하고 향교로 개칭한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교육과 향사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진주향교는 지금도 연간 일만여명이 넘는 학생과 일반인이 인성교육, 예절교육, 경서반, 선비반 강좌가 계속되는 전국에서도 손꼽는 향교이며, 유림회원은 600명이 넘습니다.

**△ 진주는 어떤 곳입니까?**

흔히들 진주를 교육, 문화 총절의 고장이라 하지요. 국립 4년제 대학이 3개나 있고, 사립대학이 3개가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임진 3대 대첩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끈 곳이며, 곧은 절개와 충효정신이 강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진주형평사운동, 진주농민항쟁이 전국 최초로 일어났던 곳이며, 국권을 잃었던 왜정시대엔 기생독립단, 걸인 독립단까지 가세했던 의협심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 이곳 진주에는 우리 일가들이 많이 거주하는지요?**  
흔히 서울경기 지역의 일가들은 경파라 하여 4세조를 기준하여 정안공(諱:德符)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지방은 향파라 하여 주로 악은공(諱:元符)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합천, 대양, 함안, 군북, 의령, 보천 등에는 100여 호가 넘는 일가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지요. 그 외 산청, 목곡, 한빈, 진주 이반성, 집현, 마산, 고성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곳 일가들이 종사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현령공 종회를 20여 년 전에 창립할 때 서울 경북에는 우영 전 총무처장관과 세용, 성보씨 등이 힘을 쏟고 경남지역엔 제가 앞장을 서 창립하였지요. 그 이후 매년 2회 봄, 가을 청송과 안동 향사에 빠지지 않고 버스를 내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회나 파 종회에 큰 일이 생기면 힘닿는 대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있게 된 뿌리는 조상님이 있었기에 조상을 섬기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이지요.

**△ 종사를 책임진 사람의 마음자세는?**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종중 일을 보는 사람이 종중에서 이득을 챙기고 개인욕심을 내면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열심히 돈을 벌어 조상을 위해 과감히 봉사하는 사람은 더욱더 번창하지만, 종중재산을 욕심내고 축낸 사람이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시 지금은 모르더라도 지식, 손자 대에 가서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사는 올곧은 심성으로 청렴결백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이루어야 합니다.

**△ 현재 대중회의 운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대중회의 운영 스타일은 숫자나 돈이 많은 특정 종파 위주로 운영되었던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 몰라도 힘없는 소수 종파의 일가들도 청송심씨 후손임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를 아우르고 그늘진 곳도 챙겨볼 줄 아는 폭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화합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특정 종파만이 큰소리 치고 힘으로 누르면 그게 파종회이지 어디 대중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중회는 힘과 돈 숫자를 초월하여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5차 위토실사, 장학금 지급 등 매우 발전적이고 화합적이며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대중회재산인 안성청화부원군파명의의 입야를 현집행부가 대중회로 명의이전 한 것은 대중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큰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 청송심씨 중보에 건의한다면?**

중보를 보면 전국 일가들의 동향을 알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특히 종회 탐방이나 종인소개 코너는 편집구상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중보 역시 과거에는 특정인의 기사나 칼럼이 고정 배치되어 식상하기도 했는데, 지

금은 대중회나 지방종회의 기사가 고루 편집되어 매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연천 청성백 정안공 재실 건립에 대하여 한 말씀 당부합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요. 먼저 전국의 일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의껏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정안공 후손 종회에서 좀 큰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청송심문의 대표적인 선조님 재실이 지금껏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사실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일가모두 관심과 마음을 열어 조상님의 음덕에 보답해야 합니다.

**△ 동섭 전교님은 글 쓰는 것이 취미라는 소문이 있던데?**

부끄럽지만 취미라 할 수 있지요. 그동안 『萬枝松 그늘에서』 등 여섯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 주로 지방신문인 경남일보에 칼럼 필진으로 오래 참여하였고, 또 유교신문 경남 주재기자를 하면서 썼던 칼럼, 고향 산청신문에서 원고 요청이 오면 쓰는 칼럼과 기행문 등을 실었지요. 앞으로도 집필 활동은 계속할 겁니다.

**△ 지방 선비로서의 유림 활동은?**

자랑 하나 할까요.(웃음)  
사실 경남 지방에서 청송심씨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덕분일거예요. 일가들은 많이 살지만, 향교나 서원에 출입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많았으나 지금은 많지 않아요.

종묘나 성균관에 축관을 비롯하여 경남, 경북 지역의 크고 작은 서원에 축이나 집례 망관을 120여장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나 각종 수비(豎碑) 행사 때는 거의 집례나 비문낭독을 하고 있으니 청송심씨 홍보대사라고 자칭하고 싶습니다. (참석자 전원 크게 웃으며 박수)

**△ 종인 탐방을 마치며**

흔히들 경남의 천년고도 진주를 강, 하, 정씨가 많이 사는 고을이라 한다. 그 틈바구니에서 향교 전교에 추대된 동섭 전교는 인고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유림사회에서, 종중모임에서 단연 경남의 대표인물로서 청송심문의 자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남의 27개 향교 중 최연소 젊은 전교로서 인구 35만여명 경남의 수부도시 진주고을의 유림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계속 정진하여 유림에서, 종사에서, 사회에서 더욱 큰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동섭 이사님의 고매(高邁)한 인품에 경의를 포함니다. 동섭 이사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對談 : 光燮 이사(前 문화이사), 재무이사 載緒

**차기 종인 소개 예정**

■ 2015년 9월 초순  
심강채 종인(전라남도 보길도)  
採籍方者 : 재무理事 載緒, 文化理事대행 甲澤



2015년 3월 2일 大韓民國 最大鄉校인 晉州鄉校 典校에 就任



2015년 3월 2일 晉州鄉校 典校 就任 告由祭 後 記念撮影



2015년 3월 2일 晉州鄉校 典校 就任式이 300여 명의 賀客이 모인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 청송심씨대종회 장학생여러분!



연태 총무이사

청송심씨대종회 장학금은 대종회 운용자금을 절약하고, 종회와 종인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성금 등을 재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심문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5천만 원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우리에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큰 감동을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 계셔서 이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을 어느 시골마을에 사시는 94세 할머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할머니께서는 2014년 11월경 매일 70만 원씩 10일간 700만 원을 장학성금으로 대종회에 기탁하였는데, 2015년 5월 말 경 또 다시 익명으로 매일 70만 원씩 10일간 7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구수를 훨씬 넘기신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한푼 두푼 어렵사리 모으신 큰 금액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청송심씨 장학성금으로 쾌척하신 할머니의 뜻은 무엇이였을까요?

우리는 굳이 무어라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의 심문을 사랑하시는 따뜻한 마음과 높으신 뜻을 헤아려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감히 짐작컨대 할머니께서는 심문의 자손들이 우리 선조들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훌륭한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여 심씨 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나라의 기둥이 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로 자라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이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삼한갑족의 훌륭한 가문의 후예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쌓

아올린 송조돈목의 미덕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생 여러분,

자신의 꿈이 아름답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미래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먼저 본연의 자세인 학업에 충실하면서 꼭 내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지금 내가 사는 이유를 알 수 있고, 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내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자애로우신 할머니의 모습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상호간에 일컫던 호칭(呼稱)은 다소 복잡할 만큼 아주 세밀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통 사회가 대가족 제도 하에서 공동체(共同體)의 일원으로 살아와 그 구성원간의 세밀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칭법(呼稱法) 자체가 하나의 문화 수준이 될 정도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는 지나칠 만큼 단순하게 축소됨으로 인해 의사전달마저 불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를 타인에게 일컬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부르는 잘못된 그 이유가 어찌하던 간에 상호간의 관계에 혼돈과 무지를 드러

## 호칭에 대한 예의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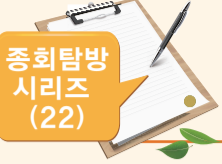
여기서는 근친간의 상호 호칭과 사회적 대인 관계의 호칭에 대한 바른 정립

으로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상호 신뢰 속에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특히 자타간의 호칭(呼稱)은 그 근간(根幹)이 타인의 존대(尊對)와 자신의 겸손(謙遜)으로 표현되어 온 미풍양속(美風良俗)의 한 일면을 볼 수도 있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시대적 조류를 무시한 무조건적인 전통 고수(固守)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호칭에 대한 바른 정립에서부터 교양(教養)을 갖춘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인간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친간(近親間)의 호칭(呼稱)

| 대상주체         | 자신이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자신을 말할 때                   | 자신이 타인에게 대상자를 말할 때            | 타인이 자신에게 대상자를 말할 때             | 대상주체           | 자신이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자신을 말할 때            | 자신이 타인에게 대상자를 말할 때          | 타인이 자신에게 대상자를 말할 때               |
|--------------|------------------------------|----------------------------------|-------------------------------|--------------------------------|----------------|-----------------------------------|---------------------------|-----------------------------|----------------------------------|
| 조부(祖父)       | 할아버지<br>할아버님<br>祖父님(조부님)     | 小孫(소손)<br>孫不肖子<br>(손불초자)         | 祖父(조부)<br>王父(왕부)<br>老祖父(노조부)  | 祖父丈(조부장)<br>王大人(왕대인)           | 제수(弟嫂)         | 弟嫂氏<br>季嫂氏(계수씨)<br>아주머니           | 나<br>生(생)                 | 弟嫂(제수)<br>季嫂(계수)            | 令弟嫂氏<br>(영제수씨)<br>令季嫂氏<br>(영계수씨) |
| 조모(祖母)       | 할머니<br>할머님<br>祖母님(조모님)       | 小孫(소손)<br>孫不肖子<br>(손불초자)         | 祖母(조모)<br>王母(왕모)<br>老祖母(노조모)  | 王大夫人<br>(왕대부인)<br>尊祖母(존조모)     | 자(姉)<br>- 누나   | 누나, 누님<br>언니<br>姉主(자주)            | 저, 나<br>동생                | 姉氏(자씨)<br>妹氏(매씨)            | 令姉氏<br>(영자씨)                     |
| 부(父)         | 아버지<br>父主(부주)<br>不孝子(불효자)    | 小子(소자)<br>不肖子(불초자)<br>家親(가친)     | 嚴親(엄친)<br>老親(노친)<br>春堂(춘당)    | 春府丈(춘부장)<br>春丈(춘장)             | 매(妹)<br>- 누이동생 | 동생, 누이<br>{이름}                    | 나<br>오빠, 오라비<br>舍兄(사형)    | 내누이<br>舍妹(사매)<br>누이동생       | 令妹氏(영매씨)                         |
| 모(母)         | 어머니<br>慈主(자주)<br>不孝子(불효자)    | 小子(소자)<br>不肖子(불초자)               | 母親(모친)<br>慈親(자친)<br>大夫人(대부인)  | 慈堂(자당)<br>萱堂(원당)               | 백부(伯父)         | 큰아버지<br>큰아버님<br>伯父님(백부님)          | 저, 조카<br>舍姪(사질)<br>從子(종자) | 舍伯父(사백부)<br>舍仲父(사중부)        | 伯玩丈(백완장)<br>玩丈(완장)               |
| 부모동시         | 부모님<br>兩立(양위), 兩堂(양당)        | 孤哀子(고애자)<br>{父母喪中}               | 兩親(양친)<br>父母(부모)              | 兩堂(양당)<br>兩位(양위)               | 백모(伯母)         | 큰어머니<br>큰어머님<br>伯母님(백모님)          | 저, 조카<br>舍姪(사질)<br>從子(종자) | 舍伯母(사백모)                    | 伯母(백모)부인<br>仲母(중모)부인             |
| 부(夫)<br>- 남편 | 당신, 여보<br>서방님<br>夫君(부군)      | 妻(처), 小妻(소처)<br>拙妻(졸처)<br>愚妻(우처) | 남편<br>家夫(가부)<br>家君(가군)        | 夫君(부군)<br>賢君(현군)<br>令君子(영군자)   | 숙부(叔父)         | 작은아버지<br>仲父님(중부님)<br>叔父님(숙부님)     | 조카<br>舍姪(사질)<br>從子(종자)    | 舍叔(사숙)<br>仲父(중부)<br>季父(계부)  | 叔父丈(숙부장)<br>仲父丈(중부장)<br>季父丈(계부장) |
| 처(妻)<br>- 아내 | 당신, 여보<br>미누라<br>夫人(부인)      | 拙夫(졸부)<br>家夫(가부)<br>夫(부)         | 內子(내자)<br>제대, 안사람<br>荆妻(형처)   | 夫人(부인)<br>令夫人(영부인)<br>閻夫人(합부인) | 숙모(叔母)         | 작은어머니<br>叔母님(숙모님)                 | 조카<br>舍姪(사질)<br>從子(종자)    | 舍叔母(사숙모)                    | 尊叔母(존숙모)<br>尊叔母夫人<br>(존숙모부인)     |
| 자(子)<br>- 아들 | 애, 큰애, 작은애<br>{이름}           | 애비, 애미, 나<br>부모, 우리              | 家豚(가돈)<br>家兒(가아)<br>자식        | 자제<br>令息(영식)<br>令胤(영운)         | 외조부(外祖父)       | 외할아버지,<br>외할아버님<br>外祖父主<br>(외조부주) | 저,<br>外孫(외손)<br>杵孫(저손)    | 外祖父(외조부)<br>外王父(외왕부)        | 外王尊丈<br>(외왕존장)<br>外王大丈<br>(외왕대장) |
| 녀(女)<br>- 딸  | 애,女兒(여아)<br>{이름}             | 애비, 애미, 나<br>부모, 우리              | 女息(여식)<br>女兒(여아)<br>家嬌(가교), 딸 | 따님<br>令愛(영애)<br>令嬌(영교)         | 외조모(外祖母)       | 외할머니, -님<br>外祖母主<br>(외조모주)        | 저,<br>外孫(외손)<br>杵孫(저손)    | 外祖母(외조모)<br>外王夫人<br>(외왕대부인) |                                  |
| 손자(孫子)       | {이름}<br>孫兒(손아)<br>祖父(조부)     | 나<br>할아버지<br>孫女(손녀)              | 家孫(가손)<br>孫兒(손아)<br>令抱(영포)    | 令孫(영손)<br>賢孫(현손)               | 외숙(外叔)         | 외숙님, 외삼촌<br>內舅主(내구주)              | 저,<br>生姪(생질)              | 鄙外叔(비외숙)<br>鄙表叔(비표숙)        | 貴外叔(귀외숙)<br>貴表叔(귀표숙)             |
| 형(兄)         | 형님<br>伯兄(백형)<br>仲兄(중형)       | 저, 동생, 아우<br>舍弟(사제)              | 家兄(가형)<br>舍伯(사백)<br>舍仲(사중)    | 伯氏(백씨)<br>伯氏丈(백씨장)<br>仲氏(중씨)   | 장인(丈人)         | 丈人(장인)어른<br>聘丈(빙장)어른<br>外舅主(외구주)  | 저,<br>外生(외생)              | 鄙聘丈(비빙장)                    | 貴岳丈(귀악장)                         |
| 형수(兄嫂)       | 아주머니<br>兄嫂氏(형수씨)<br>兄嫂主(형수주) | 저<br>嫂弟(수제)                      | 兄嫂氏(형수씨)                      | 令兄嫂氏<br>(영형수씨)                 | 장모(장모)         | 丈母님(장모님)<br>聘母님(빙모님)<br>外姑主(외고주)  | 저,<br>外生(외생)              | 鄙聘母(비빙모)                    | 尊聘母夫人<br>(존빙모부인)                 |
| 제(弟)<br>- 동생 | {이름}<br>동생, 아우               | 나, 兄(형)<br>舍兄(사형)<br>家兄(가형)      | 아우, 동생<br>舍弟(사제)<br>家弟(가제)    | 제씨(제씨)<br>令弟氏(영제씨)<br>令季氏(영계씨) |                |                                   |                           |                             |                                  |





# 青松沈氏左承旨公派 臨陂宗會

(청송심씨좌승지공파 임피종회)



沈相瑠 會長

青松沈氏左承旨公派 臨陂宗會

探訪宗會 : 青松沈氏左承旨公派 臨陂宗會  
探訪日時 : 2015年 7月 4日 오전 11시  
探訪場所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449번지 敬慕齋(경모재)  
參 席 者 : 潤燮 載亮 相瑠 錫輔 秀永 載根 芳燮 敬安 相喜 載德 載東 載秉 鉉燮 (13명)  
探 訪 者 : 大宗會文化理事대행 甲澤, 財務理事 載緒

## 1. 中始祖(諱 淑) 略史(중시조 (휘 숙) 약사)

좌승지공諱淑(十二世)은 監察公(諱 大有)와 高靈申氏 사이의 三兄弟(淑, 沃, 濬) 中 長子로서 字는 自清 號는 消憂齋이다. 陽智公(諱 業)의 長孫 이시며 의빈부 경력(從四品)을 歷任하시고, 贈 領 의정 青松府院君(正一品)인 諱 義儉의 曾孫이시고, 翁答公(諱 淇)의 玄孫이시며 同知中樞公(諱 澗)의 五代孫이고 領中樞公(諱 濟)의 六代孫이시며, 領議政을 歷任하신 安孝公(諱 溫)의 七代孫이시다.

公께서는 軍資監主簿(군자금주부)를 歷任하셨으며, 承政院 左承旨(正三品)로 贈(이증)되셨다.

公께서 서기 1636년 48세에 官職에서 물러나 八道江山을 遊覽(유람)하시다가 山水가 秀麗하고 人心이 溫厚한 臨陂縣(임피현) 鷲城山(취성산) 기슭 校洞에 마침내 遂居(수거)하시니, 이 一帶가 青松沈門의 世居地를 이룬 입향시조이시다. 특히 公께서는 校洞에 마련한 居處(거처)를 消憂齋(소우재)라 稱하고 閉門(폐문)後 독서와 시를 즐기시며 清貧樂道(청빈락도)의 선비로서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시다가 1654년 享年 66세를 一期로 逝去하시었다.

元配(원배) 淑夫人(숙부인) 紆州(우주) 黃氏와 後配(후배) 淑夫人 全州 崔氏 사이에 五男 一女를 두시어 마침내 家門(가문)의 闡(번)이루었으며, 그 집성촌은 群山市 羅浦面 富谷里이며 임피현에서는 沈黃蔡라 하여 양반의 으뜸으로서 추앙을 받았으며, 그 후손들 역시 代代孫孫 好學(호학)과 清貧(청빈)한 생활로 선비로서의 지조와 家門의 명예를 지켜 온 모범종중이다.

## 2. 青松沈門과 群山市와의 因緣 (청송심문과 군산시와의 인연)

朝鮮時代 임피현은 光復後 옥구현과 統合하여 沃溝郡이 되었으나 다시 行政區域 調整으로 現在는 群山市로 편입 확대 개편되었으며, 여조말 4世祖 青城白 定安公께서 西海道 元首로 參戰하여 왜선 五百隻을 이끌고 노략질하는 倭寇 一萬여명을 鎮浦(지금의 금강하류이며 군산의 옛 地名)에서 殲滅(섬멸)하고 鎮浦大捷(진포대첩)을 이룬 곳이며, 12世祖 左承旨(諱 淑)公께서 群山市 羅浦面 富谷里(當時 臨陂縣)에 터를 잡은 世居地로 全北地域에

살고 있는 후손들의 發源地라 할 수 있다.

## 3. 宗회의 구성

顧問 : 載鉉 潤燮 一重 載亮  
會長 : 相瑠  
副會長 : 錫輔  
總務理事 : 載根 財務理事 : 芳燮  
監查 : 秀永 銀重  
理事 : 敏 敬安 相銀 相喜 揆一 載德 載東 載敏 載秉 鉉燮 揆太

## 4. 宗회건립 목적과 사업

左承旨公(諱 淑)의 遺德을 추모 찬양하고 묘소수호 제향행과 宗中財產管理 및 宗員間의 親睦을 圖謀하는데 있고 사업은 爲先事業 文化事業(先祖의 유업계승) 장학사업 및 宗親間의 敦睦과 福祉事業을 하고 있으며, 每年 始祖를 비롯한 顯祖 참배를 통하여 崇祖敦睦의 생활화와 명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다.

## 5. 우리 門中을 빛낸 人物(우리 문중을 빛낸 인물)

16世 죽계공(諱 圭)께서는 1684년(肅宗23년 甲子)생이며 이름은 諱 圭이고 字는 瑞中 號는 竹溪이며 1705년(當時 22歲)에 옥구현에서 實施하는 鄉試에 응시했다가 玉山科場에서 咸悅사는 金 璘을 만나 壬辰倭亂 中에 失傳된 二世祖(諱 淵) 합문지 후공의 묘소가 咸悅에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10년간의 訟事를 통하여 찾는데 기여한 功이 지대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6년 대종회 초대 성택회 장남께서 設置해주시 床石을 송조돈목의 지표로 삼고 있다.

▶ 竹溪公의 詩 ◀(죽계공의 시)  
乙酉玉山試驗場(을유년 옥산의 시험장에서)  
始開先墓在南堂(先祖님의 묘소가 남당산에 있다고 처음 들었네)  
辨官十載還尋定(변론한지 10년 만에 묘소를 찾았으니)  
復享春秋芬苾香(다시 향을 올려 춘추로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리라.)

▶ 三孝子 孝行 事例 ◀(삼효자 효행 사례)  
三孝子란 16世 竹溪公 諱 圭, 19世 諱 台漢 諱 順漢 兄弟분을 말한다.  
특히 台漢公께서는 8歲에 父親의 치질을 빨고, 12세에 모친의 유종을 빨아 냐도록 하였으며 親疾에 斷指注血(단지주혈)하고 嘗糞(상분)으로 병구완한 형제분의 효성이 하늘에 이르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3년간 侍墓살이를 한 孝行으로 정려를 받았다.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에 青松沈氏 棼門三孝기적비를 세워 본보기로 삼고 있다.

▶ 書藝家 相允(1878년생~1949년卒) ◀(서예가 상운)  
公께서는 現代의 서도가이며 字는 允筆 號는 可石 이시다.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에서 出生했으며, 石峯體를 비롯 六書八體를 잘 썼으며 전서는 一品이었

다. 臨陂 沃溝 群山 지방에 병풍서 碑文 懸板 편액이 많이 있고 百壽福 글씨는 無比의 걸작이며 四君子에도 능했다. 종사랑 參奉과 青松沈氏 大宗會 의 산남당산 有司를 역임하셨다. (옥구인물지 참조)

▶ 愛國志士 載洵(1898년~1939년) ◀(애국지사 재순)  
군산영명학교(선교사가 세운 한국최초의 중등교육기관) 재학 중 기미년 만세운동으로 逮捕 拘禁되었으며, 1925년 渡日 독립운동을 위한 노동자 농민 조직체를 결성하고, 이엽사 농장 소작쟁의 시檄文(격문)을 발송하는 등 농민봉기를 선도하였다. 1928년 김병우와 함께 신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1930년 부친상 때 入國하여 군산, 김제, 익산 등을 순회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4년 刑을 받았다. 출소 후 병고를 무릅쓰고 夜學을 열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9년 9월 1일 拷問 후유증으로 향년 41세에 永眠하셨다. 2007년 5월 30일 국립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墓域에 安葬했다.

## 6. 宗친과 후손에 대한 상용회장의 당부

나를 빛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며 조상을 빛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啓發하고 조상들의 위업을 계승하는데 盡力하여 종친간에 상부상조하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가문과 국가를 빛내는 떳떳한 후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7. 대종회에 대한 당부

조상님들의 위업을 계승하고 22만 종친들의 화합을 위해 盡力하시는 대종회회장님을 비롯한 상근 이사님들께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성백 정안공 할아버지의 齋室이 완공되면 우리 沈門의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후손으로서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종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심문의 기쁨이요 자긍심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求心點이 되기를 바라면서 청송심씨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 宗회 탐방을 마치며

좌승지공임피종회는 대종회에서 장학금제도를 시행할 때 빈약한 종회 재정임에도 제일 먼저 거금을 찬조해주셔서 장학버스에 가속의 역할을 해주셨으며 송조돈목을 모법적으로 실천하는 모범종회입니다. 빠쁘신 중에도 많은 임원진께서 참여해주시어 종사발전에 상호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相瑠회장님과 秀永감사님(前 대종회총무이사)그 외 일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좌승지공파 임피종회에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次期 宗會 探訪日程  
- 2015年 8月 下旬  
- 부산 청송회 (회장 : 재영)  
- 探訪者 : 재무理事 載緒, 文化理事대행 甲澤



점심 식사 하면서 왼쪽부터 재동, 상희, 갑택, 재병, 재덕, 경안, 윤섭, 재근 오른쪽 재양, 석보, 상용, 수영, 재서, 현섭, 방섭



墓前에서 왼쪽부터 뒷줄 갑택, 상용, 방섭, 재덕, 재근, 재서 앞줄 윤섭, 수영, 상희, 재병, 재양, 석보



敬慕齋앞에서 왼쪽부터 뒷줄 재서, 현섭, 방섭, 윤섭, 재동, 재병, 경안, 갑택 앞줄 수영, 상희, 재양, 상용, 재덕, 석보



중회별(과거 14년간) 찬조 현황 2002년 ~ 2015년 7월 25일 현재

▶ 파종회

| 파 명            | 산하중회           | 世 諱          | 찬조여부  |      |    |   |  |
|----------------|----------------|--------------|-------|------|----|---|--|
|                |                |              | 장학    | 중보   | 재각 |   |  |
| 봉익공            | 봉익공원종회(회장:상하)  | 2 展          | ●     | ●    |    |   |  |
| 악은공            | 악은공중회(회장:상하)   | 4 元符         | ●     | ●    |    |   |  |
|                | 현령공중회(회장:의조)   | 5 天柱         | ●     | ●    |    |   |  |
|                | 현령공경남중회(회장:재화) | 5 天柱         | ●     | ●    |    |   |  |
|                | 목곡판사공중회(회장:봉섭) | 8 翼          | ●     | ●    | ●  |   |  |
|                | 가곡담중회(회장:한섭)   | 8 翼          |       | ●    |    |   |  |
| 도총제공파          | 도총제공중회(회장:민섭)  | 5 仁鳳         | ●     | ●    |    |   |  |
| 관사공파           | 관사공중회(회장:상우)   | 5 義龜         | ●     | ●    |    |   |  |
| 지성주사공파         | 지성주사공중회(회장:기찬) | 5 繼年         | ●     | ●    |    |   |  |
| 인수부윤공파         | 인수부윤공중회(회장:정구) | 5 澄          |       |      |    |   |  |
| 인사부수인<br>파(현판) | 곡성중회           | 9 淳          |       |      |    |   |  |
|                | 정담공중회          | 9 澧          |       |      |    |   |  |
|                | 내금위중회          | 11 澗         | ●     | ●    |    |   |  |
|                | 철도사공원강중회       | 12 元剛        | ●     | ●    |    |   |  |
|                | 군수공중회          | 13 俠         |       |      |    |   |  |
|                | 우발중회           | 13 僈         |       |      |    |   |  |
|                | 참판공중회          | 14 之治        |       |      |    |   |  |
|                | 적공파중회          | 15 嫡         |       |      |    |   |  |
|                | 청령도위공중회        | 15 益顯        |       |      |    |   |  |
|                | 좌승지공중회         | 15 楨         |       |      |    |   |  |
|                | 통천공중회          | 16 廷老        |       |      |    |   |  |
|                | 통지돈령공중회        | 16 廷紀        |       |      |    |   |  |
|                | 함흥공중회          | 16 廷長        | ●     |      |    |   |  |
|                | 현재공중회          | 17 師正        |       |      |    |   |  |
|                | 성천공파오남중회       | 18 謙鎭        |       |      |    |   |  |
|                | 익모공중회          | 20 益模        |       | ●    |    |   |  |
|                | 노학공중회          | 21 魯學        |       |      |    |   |  |
|                | 청만공파성신공중회      | 22 逸朋        |       |      |    |   |  |
|                | 안효공파           | 안효공중회(회장:명욱) | 5 溫   |      | ●  |   |  |
|                | 안효공파<br>파(현판)  | 영중추공         | 6 溶   |      |    |   |  |
|                |                | 영주공파         | 수사공중회 | 10 巖 |    | ● |  |
|                |                |              | 임천공중회 | 10 鎭 |    |   |  |
| 진사공파중회         |                |              | 11 友俊 |      |    |   |  |
| 청계부원군          |                |              | 11 友勝 |      |    |   |  |
| 좌승지공파임피중회      |                |              | 12 淑  | ●    | ●  |   |  |
| 군자감주부공파중회      |                |              | 12 沃  |      |    |   |  |
| 수찬공파고척중회       |                |              | 12 潭  |      |    | ● |  |
| 용난재공중회         |                |              | 13 得進 |      |    |   |  |
| 공숙공중중          |                |              | 6 滄   | ●    | ●  | ● |  |
| 공숙공파           |                | 이경공중회        | 7 翰   | ●    | ●  |   |  |
|                |                | 관판공중회        | 7 浚   | ●    | ●  |   |  |
|                |                | 사안공중회        | 8 暉門  |      |    |   |  |
|                |                | 수찬공중회        | 9 達源  |      |    | ● |  |

▶ 지역중회 · 중친회

| 파 명           | 산하중회        | 世 諱   | 찬조여부 |    |    |
|---------------|-------------|-------|------|----|----|
|               |             |       | 장학   | 중보 | 재각 |
| 안효공파<br>파(현판) | 효창공중회       | 9 達源  |      | ●  |    |
|               | 좌의정공중회      | 9 通源  |      | ●  |    |
|               | 정수중회        | 10 嶷  |      | ●  |    |
|               | 침정공중회       | 10 鎡  | ●    |    |    |
|               | 곡산공중회       | 10 鏞  | ●    | ●  |    |
|               | 청양군중회       | 11 義謙 |      |    |    |
|               | 풍덕공파중회      | 11 筍  |      | ●  |    |
|               | 생원공파        | 11 響  |      | ●  |    |
|               | 광주공파중회      | 11 友賢 |      | ●  |    |
|               | 선무공파중회      | 11 友信 |      | ●  |    |
|               | 선무공파포천중회    | 11 友信 | ●    | ●  |    |
|               | 사어공파중회      | 11 友寬 |      | ●  |    |
|               | 도사공파중회      | 11 友仁 |      | ●  |    |
|               | 성천부사공중회     | 11 禮謙 |      | ●  |    |
|               | 정담공파중회      | 11 智謙 |      | ●  |    |
|               | 부령공중회       | 11 信謙 |      |    |    |
|               | 충이공중회       | 11 忠謙 | ●    | ●  |    |
|               | 신천공중회       | 11 孝謙 | ●    | ●  |    |
|               | 신천공파춘천중회    | 11 孝謙 | ●    | ●  |    |
|               | 수운판관공중회     | 11 悌謙 | ●    | ●  |    |
|               | 활방공파중회      | 12 仁祺 |      | ●  |    |
|               | 정언공파진천원촌중회  | 12 仁祿 | ●    | ●  |    |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중회 | 12 協  | ●    | ●  |    |
|               | 김포군수공파중회    | 12 價  |      | ●  |    |
|               | 감찰공중회       | 12 曠  |      | ●  |    |
|               | 참판공중회       | 13 廷世 |      |    |    |
|               | 선교당파        | 13 廷熙 |      |    |    |
|               | 정강공파산중회     | 13 廷江 |      | ●  |    |
|               | 광주부윤공파산중회   | 14 崇  |      | ●  |    |
|               | 장사랑공파중회     | 14 松直 |      | ●  |    |
| 신천공파포현공중회     | 14 현        |       | ●    |    |    |
| 무숙공파중회        | 14 松茂       |       | ●    |    |    |
| 증합판공중회        | 15 漢弼       |       |      |    |    |
| 신천공파지경중회      | 15 壽漸       |       |      |    |    |
| 창순공파중중        | 16 昌淳       | ●     | ●    |    |    |
| 양순공파중회        | 16 養淳       |       |      |    |    |
| 청현공중회         | 17 宅賢       |       |      |    |    |
| 사복시정공         | 18 鎔        | ●     | ●    |    |    |
| 만중공중회         | 18 萬衆       |       | ●    |    |    |
| 통훈대부공중회       | 18 鎰        |       |      |    |    |
| 생원공파법국중중      | 19 輝之       | ●     | ●    |    |    |
| 정담공파산중회       | 19 宣之       |       |      |    |    |
| 정어공(어비리)중회    | 6 決         |       | ●    |    |    |
| 정어공중회         | 정어공파부사공중회   | 11 源海 | ●    | ●  |    |

| 지 역     | 중회명           | 찬조여부 |    |    |
|---------|---------------|------|----|----|
|         |               | 장학   | 중보 | 재각 |
| 서울      | 서서울중회         |      | ●  |    |
|         | 동서울중회         |      | ●  |    |
|         | 영등포중친회        |      | ●  |    |
|         | 청송골프회         |      | ●  |    |
|         | 청심회           | ●    | ●  |    |
| 부산      | 부산중회          | ●    | ●  |    |
|         | 부산청송회         |      | ●  |    |
|         | 부산청년회         |      | ●  |    |
| 대구      | 대구중회          | ●    | ●  |    |
|         | 대구 청 · 장년회    |      | ●  |    |
| 인천      | 인천중회          | ●    | ●  |    |
|         | 청인회           |      | ●  |    |
| 광주      | 광주청광회         | ●    | ●  |    |
| 대전      | 대전 · 충남지구중회   |      | ●  |    |
|         | 대전화수회         | ●    | ●  |    |
| 울산      | 울산청년회         |      | ●  |    |
|         | 울산청송회         |      | ●  |    |
| 강원      | 삼척중회          | ●    |    |    |
|         | 원주 · 횡성중회     |      | ●  |    |
|         | 금화중회          |      | ●  |    |
| 경기      | 춘천중회          |      | ●  |    |
|         | 김포중회          | ●    | ●  |    |
|         | 김포하성중회        |      | ●  |    |
|         | 부천중회          |      | ●  |    |
|         | 성남중회          |      | ●  |    |
|         | 안성중회          |      | ●  |    |
|         | 진호원중회         |      | ●  |    |
|         | 이천중회          | ●    | ●  |    |
|         | 용인중회          | ●    | ●  | ●  |
|         | 제천 · 단양중회     |      | ●  |    |
| 충북      | 증평중회          |      | ●  | ●  |
|         | 진천원촌중회        | ●    | ●  |    |
|         | 청주중회          | ●    | ●  |    |
|         | 청주청송회         |      | ●  |    |
| 충남      | 공주중회          |      | ●  |    |
|         | 당진중회          | ●    | ●  |    |
| 전북      | 부여중회          |      | ●  |    |
|         | 전북중회          |      | ●  |    |
|         | 전북청송회         |      | ●  |    |
|         | 익산중회          | ●    | ●  | ●  |
| 전남      | 정 · 고 · 부 화수회 |      | ●  |    |
|         | 임 · 순 · 남중회   |      | ●  |    |
|         | 순천중회          | ●    | ●  |    |
| 경북      | 함평중회          | ●    | ●  |    |
|         | 여수중친회         | ●    | ●  |    |
|         | 구미중회          | ●    | ●  |    |
|         | 성주중회          | ●    | ●  |    |
|         | 안동중친회         | ●    | ●  |    |
|         | 안동청년회         |      | ●  |    |
| 안동오평중친회 |               | ●    |    |    |
| 경남      | 김천지역중회        | ●    | ●  |    |
|         | 창송청년회         | ●    | ●  |    |
|         | 고성군중친회        |      | ●  |    |
|         | 진주중회          |      | ●  |    |
| 제주      | 통영중회          |      | ●  |    |
|         | 함안중회          | ●    | ●  |    |
|         | 합천중회          |      | ●  |    |
| 해외      | 제주중회          |      | ●  |    |
|         | 미주중회          |      | ●  |    |
| 인터넷     | 일본중회          |      | ●  |    |
|         | 캐나다중회         | ●    | ●  |    |
| 인터넷     | 인터넷중친회        |      | ●  |    |

각종 찬조현황 2015. 5. 26 ~ 2015. 7. 25

청성백 재각건립 헌성금

|            |                |
|------------|----------------|
| 10,000,000 | 성보 대중회이사(법공중중) |
| 300,000    | 용인중회(회장 진섭)    |
| 100,000    | 경보, 언촌(수원)     |

임원회비

|        |         |                                     |
|--------|---------|-------------------------------------|
| 부회장 회비 | 300,000 | 민섭                                  |
| 이사회비   | 50,000  | 상호(경기), 재근(경기 풍무)<br>재석(인천), 종덕(광주) |

중보찬조

|         |                            |
|---------|----------------------------|
| 500,000 | 상욱(캐나다중회장)                 |
| 300,000 | 갑백문화이사대행                   |
| 200,000 | 용인중회(회장:진섭)                |
| 100,000 | 동섭(경남)                     |
| 60,000  | 좌승지공파임피중회(회장 상용)<br>강채(전남) |

2014년도 이사회비 미납종인 명단

\* 2015. 12. 31 까지 회비 미납시 이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중회이사에서 제외.  
서울 : 상만, 상묵, 원식, 재철      강원 : 동섭  
충남 : 규중                                  경기 : 재만

장학찬조

|           |             |
|-----------|-------------|
| 7,000,000 | 이옥선(경북구미)   |
| 500,000   | 용인중회(회장:진섭) |

지로 중보찬조 1만원

|          |    |    |    |    |    |    |    |
|----------|----|----|----|----|----|----|----|
| 관식       | 래형 | 일택 | 태섭 | 철유 | 승보 | 재만 | 규현 |
| 태식       | 정택 | 상선 | 창환 | 동진 | 재갑 | 의철 | 길택 |
| shen jie | 규성 | 규진 | 재수 | 상필 | 병섭 | 재남 | 재하 |
| 명섭       | 재국 | 영일 | 상만 | 재원 | 정보 | 기조 | 청택 |
| 재동       | 원섭 | 승보 | 재춘 | 정우 | 재국 | 재홍 | 종덕 |
| 상돈       | 제택 | 재남 | 상렬 | 상은 | 창용 | 응식 | 상우 |
| 응래       | 재문 | 왕정 | 규철 |    |    |    |    |

청성백 ·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  
1천만원 이상은 준공시까지 사진개제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성보)    안효공파 대중회 이사 (광섭)    안효공파 대중회 고문 (재영)    안효공파 대중회 회장 (갑보 개인)    안효공파 공숙공중중 회장 (용섭)

1천만원 2015년 7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2월    1천만원 2015년 1월    5천만원 2014년 11월

중보 · 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개제



안효공파 문화이사대행 (갑백)    안효공파 용인중회 (회장 진섭)    안효공파 캐나다중회 (회장 상욱)    안효공파 광주청광회 (회장 재규)    안효공파 대중회고문 (훈중)

중보찬조 50만원 2015년 7월    중보 장학찬조 80만원 2015년 6월    중보찬조 50만원 2015년 5월    장학찬조 6십2만원 2015년 2월    중보찬조 5십만원 2015년 4월

2015년 예산대비 실적

| 구 분     | (2015. 7. 25 현재) |         | 달성률(%) |
|---------|------------------|---------|--------|
|         | 예 산              | 실 적     |        |
| 임원회비    | 19,550           | 8,900   | 46     |
| 중보찬조    | 48,000           | 18,475  | 38     |
| 장학찬조    | 2,000,000        | 199,190 | 10     |
| 재각건립헌성금 | 1,200,000        | 293,726 | 24     |



### 광섭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난 2년여 동안 대중회 재산실사팀장과 문화이사로서 헌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셨던 광섭 이사께서 개인사업에 전념하고자 2015년 6월 30일자로 문화이사 보임을 사임하셨습니다.

전. 문화이사 광섭  
광섭 이사께서는 선조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총유물 관리를 위해 영하 20도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종재실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반석을 더욱 다지셨습니다.

특히 안성 일부 종인에 의해 수십년 간 부실하게 관리되었던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의 관리 실태를 전국 종인에게 알리고, 그동안 누출되었던 종재 수입을 대중회로 입금 조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또한 대중회 재산인 청화

부원군과종중 명의를 입야를 2014년도에 대중회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업적은 대중회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광섭 이사께서는 이러한 대중회 재산실사팀장으로서의 헌신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문화이사로서 종회탐방, 종인탐방 등을 위해 전국을 다니시며 특유의 친화력과 문필로 눈부신 활약을 펼침으로써 전국 종인으로부터 많은 치하를 받았으며, 대중회의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문화이사 보임을 사임하셨지만, 풍부한 종사지식과 열정으로 계속 대중회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광섭 이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중회 집행부는 찬사를 보내드리며, 무궁한 건승을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대중회 집행부 일동



甲澤문화이사 대행

전 (前) 광섭 문화이사 후임으로 갑택 일가를 2015년 7월1 일자로 문화이사대행으로 위촉하였다. 갑택 문화이사대행은 금년 70세로 경찰공무원으로 20년 공직생활과 청소년 상담국장 등의 중요업무를 수행하였고, 양로원, 불우시설, 고아원 등 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신 훌륭한 일가이다.

### 공지사항

#### 2015年度 乙未年 中秋節祀 奉行 公告

五世祖 安孝公(諱:溫)과 六世祖 恭肅公(諱:澹) 두 분을 모시는 秋夕 節祀에 後孫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夕 節祀는 秋夕日 12時(正午)에 奉行합니다.

1. 五世祖 安孝公(諱:溫) 9月27日(陰8月15日)(日曜日) 12時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401, 묘전
2. 六世祖 恭肅公(諱:澹) 9月27日(陰8月15日)(日曜日) 12時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 묘전

#### 종보 지로 찬조

지로종보 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로써, 연 2회(3월, 9월) 지로종보찬조 용지가 발송됩니다.

#### 족보 재고 저가공급 안내

2000년 경진보 족보를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 품절될 수 있으니 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질 11권 6만원이며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대중회 총무이사 彥泰

#### 수정

- 113호 헌성금 접수내역 중 四世祖(덕천) 정보(영양)를 경보(영양)으로 수정
- 7면 청성백 재각건립헌성금 중 단성목곡판사공종회(회장 재화) → (회장 동섭)

### 인터넷족보 수단접수 안내

청송심씨대중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족보는 매 3~5년마다 추가로 등재합니다.

추가 등재 때마다 기본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매년 등재하지 못함을 양지하시고, 금년에 많은 분들이 등재하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엮어 발간하는 족보는 향후 수십여년 간 격으로 별도의 수단과정 없이 인터넷 족보를 인쇄하는 형식으로 발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등재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재신청안내 -

1. 수단 접수기간 : 2015년 6월 1일 ~ 11월 30일 (6개월 간)
2. 제출서류
  -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서식)
  - 나.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재적등본 등 공문서
  - ※ 등재자의 모든 인적사항은 공문서 기준으로 등재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또는 집에서 관리하는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3. 제출방법

가. 우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 47 (우편번호 : 100-310)

나. 팩스 : 02-2269-7755

#### 4. 수단록 작성방법

대중회 홈페이지(www.csshim.or.kr) 인터넷 족보(추가등재신청) 메뉴에 공지한 수단용지(갑, 을)를 다운로드하여 수단작성 방법(견본)을 참조해 작성

#### 5. 수단금 납부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나. 계좌번호 : 농협 301-0164-0584-31 (청송심씨대중회)

#### 6. 유의사항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동봉해 주시기 바라며, 수단록만 제출하신 분은 인터넷 족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나. 2011년도 이후 대중회에 인터넷, 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기 인터넷 등재 신청 하신 분께서도 2015. 6. 1~11. 30까지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은 청송심씨 대중회 총무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대중회 총무이사

### 종보 구독신청

종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종인께서는 대중회 사무실로 도로명주소와 성명을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송부해 드립니다.

### 책자 강매주의

일부 물지각한 상인들이 대중회를 사칭하며, 족보, 가승 등 종회관련 책자를 고가에 강매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총회 정기총회 및 종회장 이·취임식 개최



#### 심우정 약력

- 제6대 대구총회장
- 선산종회장
- 전 고등학교 교감

신임 우정 대구총회장 취임식

청송심씨 대구총회는 2015년 5월 23일 19:00에 비엔나 웨딩에서 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구총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宇正 회장께서는 종회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해 종인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4년여 동안 회장을 맡아 수고하신 紅燮 전임 회장에게는 대중회장의 공로패를 전달했다.

### 정성어린 찬조금 전달 - 용인중회

지난 7월 15일 용인중회(회장 진섭)에서 대중회를 방문하여 장학기금과 종보찬조금을 기탁하였다.



### 송금안내

청성백 정안공 재각건립 헌성금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59-0778-41

### 송금안내

임원회비·종보찬조·장학찬조·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VI. '한양' 건설의 총책임을 완수하다

- 심덕부 총감독의 한양 건설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공은 태조 3년에 오늘날의 개성인 松都修築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다음해에는 新都造成都監의 책임자인 判書에 임명되어 한양 건설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조선 500년 역사의 최종심인 한양 건설을 위해 일신을 다 바치신 것이다. 조선 말기 고종 연간에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곳으로 고종이 이어하면서 조선 건국 초기에 법궁인 경복궁을 영건한 공이 있는 정도전, 심덕부 등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라는 전교를 내린 바 있다. 『國初에 영건한 공을 생각건대, 鄭道傳, (...), 靑城白 沈德符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지금 옛 나라가 새롭게 명을 받는 즈음을 당하여 나의 뜻을 표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묘에 모두 지방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7월 2일)

이 왕명에 따라 연천에 있는 공의 묘소에서, 그 지역 군수가 성대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것임에 틀림없다.

VII. 조선의 외교관 심덕부 - 明 나라에 세 번 賀正使로 다녀오다.

공은 賀正使로 명나라에 세 번 다녀왔다. 하정사는 제후국이 천자국에 정초에 정기적으로 하례하는 사절단이었다. 첫 번째는 우왕 4년(1378) 10월에 개경을 출발하여 다음 해 3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의 직책은 판밀직사사였다. 이때 공은 명나라 황제 앞에서의 행동이 민첩하여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명나라 황제는 공의 귀국 편에 명나라 사신을 동행시켜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는 우왕 11년(1385) 10월에 출발하여 다음해 3월에 귀국하였다. 이 때의 직책은 문하찬성사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 째는 공양왕 3년(1391) 9월에 시종으로서 사행을 다녀왔다.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귀국길에 남긴 글이 『청송심씨종보』 7호와 50호에 수록되어 있다.

“어제 서신편에 몽고 사신이 변방까지 왔다 즉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소.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모르긴 하지만 요즘 政況이 어떠한가요? 이곳은 날마다 분주하오만 말로 다 하기는 어렵소.

듣기로는 趙浚이 100리 안에 머물고 있다하니 오늘 중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요. 노래 중에 ‘술 익자 국화 피고, 친구가 찾아 오자 달이 밝도다’는 것은 이것을 일컬음인데, 다만 새로 담긴 술이 아직 다 익지 않은 것이 흠이요.

회(淮)읍의 말으신 일은 좀 덜 바쁘신가? 여기서 서울까지 4~5일 걸리는데, 지나는 길에 들러 하루 이를 쉬면서 회포를 풀까 하오. 격식을 다 차리지 못하오. 11일 사시. 덕부.”

이 편지는 공께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한양의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의 유일한 필적이 아닌가 싶다.

VIII. 국가를 경영하다

1. 정치인·경제가로서의 심덕부의 활동

공은 재상으로 있으면서, 몇 가지 정치 개혁을 주도하였다. ① 관찰사 제도를 혁파하고 안렴사 제도를 복구함 ② 절제사, 경력, 도사의 제도를 없애고 장무, 녹사 제도로 환원시킴 ③ 감무, 역승, 유학 교수관, 각 고을의 장에 관한 법령의 폐지 ④ 각 기관에서 상부의 비준을 받을 때 도당에 직접 보고하고, 6조에 예속시키지 말 것 등이었다. (『고려사』 권 116, 심덕부 열전).

2. 조선 왕실의 외척이 되다

공의 5남온(溫)이 세종의 장인이 되어, 태종 이

방원과 사돈이 되었다. 공의 6남 종(滄)이 태조 이성계의 차녀 경선공주와 혼인하여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그러나 종은 불운한 삶을 마친다. 태종 이방원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던 회안대군과 가깝게 지낸 것이 화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태종 16년에 황해도 토산에서 유배 중에 사망하였다. 무남독녀였기에 외손이 제사를 죽 지내왔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3. 조선 수도 한양의 명물이었을 ‘淸虛精舍’를 짓다

공은 68세 무렵인 1395년에 서울 청과동에 대저택인 ‘청허정사’를 지었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나, 아마도 99칸 대저택으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한양 건설의 총책임자였던 공은 건축에 대한 고도의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말년에 마련한 청허정사는 그야말로 심씨 가문의 위세를 말없이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청과동을 ‘靑松沈鄕’으로 일컫게 된 것이다. 이 저택에 살면서 성석린에게 보낸 시가 전해진다.

“대대로 벼슬하는 일 하필 延陵에서 비롯하라 /

화려한 일산과 수레로 불러 주기를 기다리지 않 노라 / 구름조차 울타리를 보호하여 온 나라를 맑게 하리니 / 鼎彝에 글자를 새겨 中丞까지 아우르리라” (심덕부『淸虛精舍贈成濁谷石麟』, 청송심씨대종회 간행, 2006 『靑松沈氏世稿選』 34~35쪽).

이 시는 조선왕조의 창업과 가문의 번성에 대한 공의 공지를 숭회한 것으로 보인다. 청과동의 심씨 대 저택은, 덕부 공의 그간의 공로와 성취에 대한 보답의 상징물이었다.

IX. 청백리 심덕부와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이는 평가들

1. 청백리로 청사에 이름을 남기다

1) 공의 신도비에 나타난 후손의 평가는 이렇다.

“성품이 인자하고 엄정하여 喜怒를 나타내지 않고 사생활에 쏠리지 아니하였다. 將相의 자리에 있는지 20여 년에 집안에 남은 재물이 없었다. 무릇 편지에 물품이 있는 것은 문안에 받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여러 아들들이 벼슬에 나가면 매번 손발을 내밀어 그 트고 동상이 걸린 것을 보여 주며 말하기를, ‘나는 나가나 들어오나 부지런히 일 하였어도 겨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들이 어찌

심덕부(1328~1401, 향년 74세) 年譜

| 서 기   | 나이 | 주요행적  | 비 고                              |
|-------|----|---|----------------------------------|
| 1328년 | 1  | 경북 안동군 태현리 대능촌 출생   | (충숙왕 15)                         |
| 1340년 | 13 | 고려 말 성리학의 대가인 稼亭 李穀의 문하에서 수학  | (충혜왕 복위 1년)                      |
| 1344년 | 17 | 유학을 마치고 좌우위참군에 임명됨(〈행장〉)  | 〈열전〉에는 司樞直長 司正으로 나옴. (충혜왕 복위 5년) |
| 1345년 | 18 | 이곡의 아들 이색이 동갑 동문으로 내방   | (충목왕 1년)                         |
| 1346년 | 19 | 사문사직장을 거쳐 사문사정이 됨   | (충목왕 2년)                         |
| 1347년 | 20 | 이색을 방문하고 시를 지음  | (추목왕 3년)                         |
| 1348년 | 21 | 사농포총제가 됨  | (충목왕 4년)                         |
| 1350년 | 23 | 감창부정  | (충정왕 2년)                         |
| 1354년 | 25 | 부친 청화부원군 별세로 사임(?)  | (공민왕 3년)                         |
| 1357년 | 30 | 전농관학교수  | (공민왕 6년)                         |
| 1358년 | 31 | 중랑장 겸 합문인지부사  | (공민왕 7년)                         |
| 1359년 | 32 | 통직랑추밀원전리총랑  | (공민왕 8년)                         |
| 1360년 | 33 | 명순대부위위시주부   | (공민왕 9년)                         |
| 1361년 | 34 | 통선대부대명부관관   | (공민왕 10년)                        |
| 1362년 | 35 | 봉선대부합문부사  | (공민왕 11년)                        |
| 1363년 | 36 | 봉상대부전공총랑/중현대부소부운  | (공민왕 12년)                        |
| 1364년 | 37 | 수원부사  | 최초로 목민관부임 (공민왕 13년)              |
| 1366년 | 39 | 강화부윤 - 향교 진흥시킴  | 교육가 (공민왕 15년)                    |
| 1367년 | 40 | 형옥사를 거쳐 병마사가 됨  | 군 사령관 (공민왕 16년)                  |
| 1368년 | 41 | 왜구 토벌 - 中문령에서   | 전공 (공민왕 17년)                     |
| 1369년 | 42 | 전리사와 관도사의 제거사가 됨  | (공민왕 18년)                        |
| 1370년 | 43 | 추밀원판지사  | (공민왕 19년)                        |
| 1371년 | 44 | 통헌대부중추원도정/총주목사, 총주목사 임기 중 모친 상을 당하여 사임, 복상 - 충주에서 안성까지 도보로 奔喪   |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임(공민왕 20년)         |
| 1373년 | 46 | 정순대부관위위시사   | (공민왕 22년)                        |
| 1375년 | 48 | 우상시/봉익대부예의관사/강계도만호/밀직부사/의주부원수   | (우왕 1년)                          |
| 1376년 | 49 | 밀직부사 겸 상호군  | (우왕 2년)                          |
| 1377년 | 50 | 동지밀직사사 겸 상호군/3월, 서해도부원수 겸 도순문사/6월, 왜구가 신주 등에 침략하자 도순문사로서 양백익과 함께 격퇴/9월, 조부 합문지후 공(연)의 묘소를 경남 산청에서 전북 익산의 남당산으로 천장           | (우왕 3년)                          |
| 1378년 | 51 | ‘추성협찬공신’ 호 받음/판밀직사사 겸 상호군/10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 광정대부가 됨 - 하정사   | 외교관의 역할 - 하정사 공신칭호(1차)(우왕 4년)    |
| 1379년 | 52 | 3월, 명나라에서 귀국-- 명나라 황제가 고려에 과다한 공물을 요구하는 조서를 가지고 올. 지문하부사/상의회의도감사 겸 상호군 /휴가 얻어 선영에 성묘하고 이색과 해후하여 詩를 지음./서해도 원수, 판밀직사사, 지문하부사 | (우왕 5년)                          |
| 1380년 | 53 | 삼남도원수/왜구가 전함 50척으로 침략, 심덕부가 전함 40척으로 토벌하자 왕이 상금 50냥을 하사함.   | 왜구 토벌 (우왕 6년)                    |
| 1381년 | 54 | 이성계가 남쪽으로 정벌할 때 심덕부에게 청원하자 같이 원정하여 동남 지방에서 위덕을 떨침.  | (우왕 7년)                          |



편히 앉아서 벼슬을 받는단 말이냐?’ 고 하였다.

내직에 있으면 강직 결백하여 사사로움이 없었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과수만 죽이되 많은 부하는 살려주었다. 한가할 때는 항상 책을 읽었으니 소연한 선비같았다.”(심통원, <청성백정안공신도비>)

위 글은 공의 '행장'을 기반으로 첨삭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청렴결백한 공의 면모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사실 공은 여러 가지 공로로 인하여 조정으로부터 많은 땅과 재산을 하사 받았다. 그러므로 당대의 부유한 벌열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2) 공의 청렴함은 6남중(滌)의 혼인담에서도 나타난다. 이성계를 대신하여 경선공주와 6남의 혼인을 청하러 온 이방원이 집안에 당도했다. 이때, 공은 아침 식사 중이었는데, 입에 있던 거친 '조밥'을 처리하시느라 손님 맞이가 지체되었다. 일국의 재상이 조밥을 먹는다는 말에 놀란 이방원은 밥그릇을 보여 달라고 했고, 사실을 확인한 이방원이 송구해마지 않았던 것이다.(<청송심씨종보> 78호.)

3) 정승이 된 후에도 자식과 종들에게 “내가 아침 저녁으로 관청에 있으니, 너희들은 편지로 안부를 물으면서 물건을 가져오거든 받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이다.(<청송심씨종보> 55호 / <행장>)

### 2. 장수의 복을 누리다

공은 당시로서는 장수한 74세로 영면하시었다. 아마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청백리로서의 삶을 사셨기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국사에 분주하니 노년의 치매를 막을 수 있었고, 젊은 시절 외적 퇴치에 신명을 바치는 과정에서 강건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 3. 심덕부 삼존불

근자 '심덕부 삼존불'이 발견되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조선 개국 직후에 최고의 匠人이 정성껏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삼존불상 내부에서 “청성백 심덕부가 발원해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힌 황색 비단이 발견되어 그 제작자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보물급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는 이 불상은 공께서 말년에 가문의 안녕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은 성리학을 표방한 사회였으나, 정신 세계는 불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년의 공은 사후 극락왕생과 가문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정성을 기울인 삼존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 4. 후손들이 덕을 보다

조선 후기 정조 연간의 기록에 보면, 공의 후손을 자처하는 유생이 세금을 면해 달라고 청원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형조가 擊鐘人 등의 原情으로 회계하였다. “松禾의 유학 沈濤海의 원정에, ‘저는 청성백 심덕부의 16대손으로 송화에 우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들여서는 ‘너의 오촌 조카 다섯 사람이 모두 軍額으로 정해졌으니, 役價를 속히 모두 납부하라.’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탈하해 주소서.’ 하였습니다.”(<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4월 4일).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조선시대 내내 어려운 일을 당한 후손들은 덕부 공의 후손임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공의 음덕이 오래도록 자손들에게 미치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공의 덕망을 사모하여 공을 서원에 배향하였으니, 광주의 東湖祠와 심씨가 다수 거주하는 장성의 良溪書院이 그곳이다.

### X. 출장입상(出將入相) 심덕부 - 청송 심문의湖水가 되다

청송 심문이 대 문벌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

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공이 이성계와 더불어 위화도 회군을 결행하고, 그 이후 조선의 대문벌이 된 것이다. 공이 역사책에 이름을 등재한 것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크게 물리친 이후이다. 진포대첩이 바로 그 중요한 계기이다. 이 기록 이후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는 최선봉에 있었다.

공은 조선 개국 전에는 고려의 창왕을 몰아내고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옹립하여 이른바 '9공신'에 들었다. 공은 명나라에 세 번이나 하정사로 다녀온 외교관이였다. 나아가 한양 건설의 총책임자로서 조선 왕조의 수도를 훌륭히 건설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대인이 본 심덕부는 “마음가짐이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몸 다스림이 청렴하고 간소하였다. 행동은 강직하면서도 풍도는 온자하고, 말은 적으면서도 처사는 자세하였다. 진출하고 물러감을 때

에 맞게 하고, 편안함과 위태로움에 뜻을 경주하였다. 때에 맞게 변통하여 병기(兵機)에 잘 응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서 오직 경의 명령대로 하였다.”고 한다.(이첨(李詹)<左侍中沈德符教書>「동문선」 제23권)

우리는 공의 초상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음 기회에 공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면 이 기록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공은 아드님 7분을 훌륭히 성장시켜 조선시대 대 문벌가문의 기초를 닦았으니 공은 명실공히 청송 심문의 '호수' 역할을 하였다.

시조이신 흥부의 뒤를 이어 연-용으로 이어진 고려 말 신흥사대부 가문의 청송 심문은 청성백 덕부 공에 이르러 큰 湖水를 이루고, 거기서 다시 수백 갈래의 걸출한 인물들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공은 청송 심문의 호수였던 것이다.

### 심덕부(1328~1401, 향년 74세) 年譜

| 서기    | 나이 | 주요행적  | 비고   |
|-------|----|---|--|
| 1382년 | 55 | 서북면도순문사 겸 평양윤이 되어 성과를 보수. 표창을 받다  | 평양성 수축공로 세움 (우왕 8년)  |
| 1383년 | 56 | 오랑캐의 난이 있자, 심덕부에게 변방의 안전지책을 하문하자, 좋은 방책을 상주할 때마다 채택됨  | (우왕 9년)  |
| 1384년 | 57 | 관개성부사 / 윤 11월, 찬성사  | (우왕 10년)   |
| 1385년 | 58 | 4월, 찬성사로 동북면 상원수가 되어 북청, 함주 등지의 왜구를 토벌 / 7월, 단천에 침입한 왜구 격퇴, 150척의 왜선이 함주, 홍원, 북청, 함남북을 침략하자 왜구를 섬멸하고 서울에 돌아오자 문하찬성사가 됨. 이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 - 하정사  | 외교관의 역할- 하정사 (우왕 11년)  |
| 1386년 | 59 | 명나라에서 귀국하여 청성부원군에 봉군됨   | (우왕 12년)   |
| 1387년 | 60 | 2월, 오랑캐 합목아단이 6진을 공격하자, 심덕부가 출정하여 섬멸하고 9월에 '광정공신'의 호를 받다.   | 공신칭호(2차) (우왕 13년)  |
| 1388년 | 61 | 요동정벌 시에 좌군도통사 조민수 휘하의 서경도원수로 출정한 뒤, 위화도 회군 시 중심적인 역할을 함(후에 '회군 1등 공신'이 됨).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움, 판삼사사가 되고, '충근양절동덕안사공신'이 됨.  | 공신칭호(3차) (창왕 1년)   |
| 1389년 | 62 | 11월, 廢假立眞하여 우왕을 폐위하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옹립함. 벽상삼한삼중대광 문하시중 겸 판도평의사사 영효사관사 팔위상호군 영경연사에 제수됨. 12월, 심덕부를 비롯한 위화도 회군 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른 바 '9공신'에게 '분충정간광복섭리좌평공신' 호인 증흥공신 녹관이 하사됨. 그리고 '청성군개국충의백'에 봉작되었다. 여기에 식음 1,000호, 식실봉 300호가 내려지고 전토 150결, 노비 15명이 하사됨. 이 공으로 심덕부의 부친 심통에게 문하시중이 증직되고, 청화부원군이라는 작이 추봉되었다. | 공신칭호(4차)<br>* 토지 150결-전토 150결은 약 6만평 (공양왕 1년)                            |
| 1390년 | 63 | 4월, 말 1필과 은괴 한덩이, 비단 명주 각 5필, 금대 1개, 전토 100결이 하사됨. 8월, 이성계와 함께 한양 천도 이후 전제개혁 단행함. 12월, 척질 김중연 사건에 관련돼 문하시중을 사퇴하고 황해도 兎山으로 귀양 감  | * 토지 100결은 약 4만 평<br>* 62~63세에 하사 받은 토지가 약 10만 평 이상 이 될 것으로 보임. (공양왕 2년) |
| 1391년 | 64 | 1월, 역울함이 풀려 귀양에서 풀려남. 2월, 청성군충의백에 봉작되고, 토지를 받다. 9월, 문하좌시중이 되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감-賀正使, 이때 '安社功臣'의 호를 받음  | *토지-액수미상<br>*외교관의역할- 하정사<br>*공신칭호(5차) (공양왕 3년)                           |
| 1392년 | 65 | 3월, 환국 / 4월, 수시중 정몽주가 살해되자 도의적 책임을지고 판문하부사가 되다. 7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왕이 되자 판문하부사를 사직하고 은거  | 고려멸망 조선개창 (조선 태조1년)  |
| 1393년 | 66 | 7월, 위화도 회군에 대한 '회군일등공신'이 되다. 10월, 6남 滌이 태조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하여 청원군이 됨.  | *공신칭호(6차) *이성계와 사돈이 됨으로써 왕실의 외척이 되다 (태조 2년)                              |
| 1394년 | 67 | 1월, 신년 하례 차 태조 이성계를 만나 송도 수축의 총괄 책임을 맡음, 2월 말에 완성함. 9월, 신도궁궐조선도감 관사가 되어, 도시 구획 정리, 사직단, 종묘, 궁궐 조성 사업 착수   | *한양건설의 총 책임자 (태조 3년)   |
| 1395년 | 68 | 사직단과 종묘 완성, 390칸의 궁궐 조성하여 10월에 입궁함. 잔여 공사는 계속됨. * 청과동에 사저를 새로 짓고 '淸虛精舍'라 칭함. 이 사저에서 유명한 성석린에게 준 시가 남아있다('淸虛精舍贈成澗谷石麟').  | * 개인 사저 - 淸虛精舍를 지음, 이에 따라 서울 청과동을 '淸松沈鄉'이라 일컫게 됨(태조 4년)                  |
| 1397년 | 70 | 6월, 신도궁궐조성공사 끝나자 판문하부사가 됨.  | (태조 6년)  |
| 1398년 | 71 | 9월, 영삼사사  | (태조 7년)  |
| 1399년 | 72 | 12월, 특진보국송록대부 문하부좌정승  | (정종 1년)  |
| 1400년 | 73 | 3월, 병환으로 좌정승 사임   | (정종 2년)  |
| 1401년 | 74 | 1월 14일 별세. 태종이 조문, 조정의 의례를 3일간 정지하는 철조 3일, 미두 각 100석 부의, 시호 정안, 태종이 예조에 명하여 麻田縣(지금의 연천)에 예의를 지켜 장례를 치르게 함.* 부조의 교지가 내림  | *不祧의 교자-가문의 영 광임. 4대 봉사를 넘어 계속 제사케 하는 것. (태종 1년)                         |